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9월 빚폭탄 우려 잠재우기

대출 잔액 100조→76조원...2025년 9월까지 만기 연장 등 연착륙 지원 광주·전남신보 올 상반기 보증사고율 전년비 2배 증가...9월 이후 촉각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됐던 대출 상환유예 조치가 오는 9월 말 종료돼 이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금융 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경기침체로 코로나 확산 당시 대출을 받았던 광주·전남지역 소상공인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사고 금액이 증가하는 등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상환유예 조치가 끝나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기 시작하면, 쪼달업과 도산으로 이어지는 등 지역경제가 위기에 빠질 수 있는 불안이 감돌았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 조치가 종료돼도 일괄 만기가 돌아오는 구조가 전혀 아니라며 불안을 잠재우기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잔액이 9개월 새 100조원에서 76조원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말 기준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금액과 이용 차주는 약 76조2000억원, 35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약 100조1000억원, 43만4000명과 비교하면 각각 23조9000억원, 8만3000명 감소했다. 대출잔액 기준으로 약 24%, 차주수 기준으로 20%가량 줄어든 것으로, 차주들의 순조로운

연착륙이 진행되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평가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만기연장 잔액은 같은 기간 90조6000억원에서 71조원으로, 상환유예 잔액은 9조4000억원에서 5조2000억원으로 줄었다.

상환유예 잔액 중 원금 상환유예는 7조4000억→4조1000억원, 이자 상환유예는 2조1000억→1조1000억원 등이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가 확산함에 따라 2020년 4월 경영위기에 빠져 유동성 문제를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에 대해 만기연장 및 원금·이자 상환 유예를 지원했다.

이번 지원이 다음 달을 끝으로 종료되면서 그동안 각종 지원 조치로 억눌려왔던 대출 부실이 '폭탄'으로 작용, 한 번에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경제계 안팎에서 계속됐다.

실제 올 상반기(1~6월) 보증사고율은 광주신용보증재단 4.22%, 전남신보 4.3%로 전년 상반기 대비 각각 2.63%포인트, 2.82%포인트 증가했다.

신용등급이 좋지 못한 소상공인들이 지역 신보로부터 보증 받고 은행에서 돈을 빌렸지만, 기한 내 돈을 갚지 못한 사례가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같은 기간 보증사고 금액도 광주신보가 전년 한 해 총 금액(247억원)을 이미 넘어선 258억원으로, 전남신보도 전년 한 해(248억원) 액수를 넘어선 267억원을 기록 중이다.

이처럼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상환유예 조치마저 끝나면 상환 압박을 견디지 못한 지역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에 내몰릴 수 있어서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9월 말이 돼도 만기연장·상환유예 해 온 대출의 일괄 만기가 돌아오는 게 아니고, 지난해 9월 마련된 금융권 '연착륙 지원 방안'에 따른 조치들이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연착륙 지원 방안에 따르면 만기연장 차주는 2025년 9월까지 만기 연장을 지원받을 수 있다. 만기연장·상환유예에 대출 잔액 중 만기연장 잔액이

90%가 넘기 때문에 사실상 정책 지원 효과가 당분간 지속되는 효과가 있다.

상환유예는 금융회사와 차주 간 협의를 통해 마련된 상환계획서에 따라 거치기간(1년) 및 분할상환(최대 60개월)이 적용된다.

6월 말 기준 상환계획 수립 대상자(1만1111명) 중 98.1%가 상환 계획 수립을 마쳤다.

금융위는 미수립 차주 약 200여명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와의 협력이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자 상환유예에 대한 잔액은 전체 잔액 대비 1.5%, 차주 수는 800명 규모"라며 "상대적으로 부실 위험이 있지만 불가피한 경우 금융사 자체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 새출발자금 등 채무조정 등 금융 편의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800명 규모의 이자 상환유예 차주에 대해서는 1대1 차주별 관리도 이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 지원협의회에서 간담회를 마친 임경준 회장과 조종래 광주전남중기청장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제공>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해야”...광주·전남 중기 현장간담회

중기중앙회·중기청 공동개최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회장 임경준)는 29일 광주수퍼마켓협동조합 2층 회의실에서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지역 중소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올해 시행된 '지역중소기업법'에 따라 구성된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지원협의회'와 공동개최됐다. 조종래 광주전남중기청장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광주테크노파크, 광주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장 20명이 참석해 중소기업 현장애로에 대해 담당기관장이 직접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는 임경준 회장을 비롯해 광주수퍼마켓협동조합 조경문 이사장 등 9명이 참석해 지역 중소기업들의 규제 및 애로사항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회의에서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와 지역

중소기업 협업축진을 위한 '지역중소기업법' 개정,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 연장(1년→3년),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 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사업조합의 업무구역확대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 중소기업 현안과제들이 논의됐다.

이후 지원협의회 참석 기관은 광주수퍼마켓협동조합 물류센터를 방문해 협동조합 운영현황 및 현장 애로를 파악하는 시간도 가졌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한전KDN, 취업준생에 취업 진로·채용 상담

광주·전남권 대학박람회 참가

한전KDN은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광주여자대학교 유니버시아드 체육관에서 열린 '2023년 광주·전남권 대학박람회'에 참가했다고 29일 밝혔다.

전남도와 광주시, 전남도교육청, 광주시교육청, 광주전남대학총장협의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박람회는 고교생 및 학부모에게 광주·전남권 대학 정보를 제공, 수험생의 지역 내 대학 진학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됐다.

한전KDN은 박람회에 참여한 지역 청년에게 향후 취업 진로와 채용 상담을 제공하고, 지역발전 혁신중심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혁신도시 이전 공기업의 일원으로 행사에 동참했다. <사진> 채용담당 직원과 광주·전남 출신으로 회사 현업에 근무하고 있는 IT·통신·전기 부문 직원들이 취

업 상담자로 참가해 한전KDN 홍보와 취업 합격을 위한 경험 등 정보를 제공했다.

한전KDN 관계자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전 지역 청년들이 겪는 진학 및 취업 고민 상담과 선배들의 실제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며 "광주·전남 지역 청년들의 취업과 정착까지 지역 기관과의 지속적 협력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광주상의, 권역별 공급망 ESG 지원센터 지정

중소·중견 수출기업 지원

광주상공회의소가 29일 대한상의의 '권역별 공급망 ESG 지원센터'에 지정됐다.

이날 광주상의에 따르면 '권역별 공급망 ESG 지원센터'는 주요 선진국의 ESG 법제화와 공급망 실사가 강화됨에 따라 지역 중소·중견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출범했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광주를 포함해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평택, 여수, 창원 등 광역시와 주요 산업단지 소재 지역상의 26곳이다.

지원센터는 EU 공급망 실사 및 ESG 법규 관련 애로사항 청취, ESG 진단 및 컨설팅 지원, 지역 중소기업 ESG 실무 교육 운영, 지자체 및 유관기

관 대외협력의 창구로 지역 수출기업의 ESG 경영 도입을 적극 도울 예정이다.

광주상의는 "공급망 ESG 실사법이 독일과 유럽을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협력사에 대한 ESG 규제가 늘고 있지만 많은 지역 기업들은 관련 정보와 인력 부족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우리 지역기업들이 ESG 이슈에 대응하고 공급망 실사에 따른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상의의 차원에서 적합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 (한미쇼핑사거리)